



## 목회서신 (5/30/2021)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문안 드립니다.

최근에 매미 소리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방문 중인 버지니아 주에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매미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사회자가 매미에 관한 언급을 빼놓지 않습니다. “브루드 X”라고 불리는 매미의 공습이 시작되었다고 다들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매미 소리가 여름의 상징으로 여겨질만큼 매년 만나는 곤충이지만, 일부 나라에서는 보다 더 긴 주기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동부에서는 지난 17년간 땅 속에 있던 매미들이 한꺼번에 지상으로 올라온다는 것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는 수십억에서 어쩌면 수조 마리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하니 그 수가 가히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제가 주 중에 우리교회 주변에서도 이미 성충이 되어 날아간 매미들의 남은 흔적을 여기저기서 보았는데, 특히 수컷의 울음소리는 최대 100 dB로 자동차 엔진 소리에 가깝다고 하니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땅 속에서 어떻게 17년이라는 시간을 보낼까? 그 많은 개체가 어떻게 동시에 올라올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 생각할수록 놀라운 자연의 신비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에 의해서 자연의 신비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실마리조차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섭리는 참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미국에서는 곤충채집 같은 방학 숙제는 없나요? ^^

몇 가지 소식과 기도 제목을 전해 드립니다.

### 1. 방역 조치와 관련한 우리교회의 계획.

- 오늘(5/30)부터 소그룹의 주 중 교회 사용을 허용하며, 다른 그룹에게도 모임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는 조건은 유효합니다.
- 마스크 사용 해제에 대한 CDC의 권고도 있지만, 6/11까지 의무화를 명한 KY 주정부의 방침에 따라 추가 논의 때까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당부 드립니다.

- 8월부터는 교육부 각 부서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 7월 중에 준비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점심 친교를 비롯한 다른 세부적인 사안들은 추후 논의를 거쳐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 2. 주 중 모임 안내

- 청년부 모임: 일요일 오후 1:00 (오늘 오후에 모임이 있습니다)
- 6, 7월은 청년부 주일 모임이 없고, 전반적인 사역은 계속됩니다.
- 셀장/인도자 모임: 방학과 함께 정기적인 모임은 없습니다. (모임 시 사전 공지)

## 3. 담임목사 일정

- 5/28(금) EHS 졸업예배 설교와 5/29(토) 졸업식 참석으로 출타 중.

## 4.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

- 김금례: 네팔, 이삼열/김현정: 미얀마, 김유신/이경아: 우간다
- 이창원/윤향희: 이집트, 허 통/최은주: 카자흐스탄
- 재정지원과 함께 기도의 동역으로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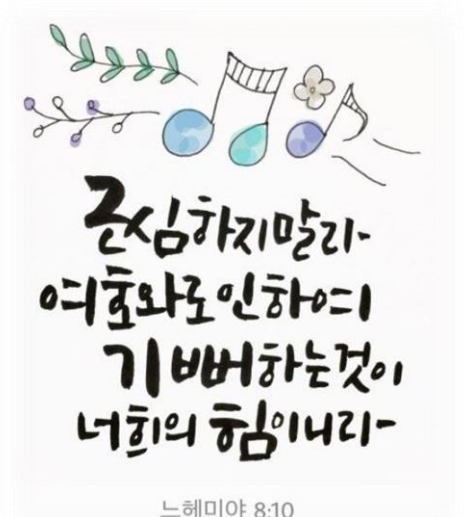
## 5. 건강과 여러 사정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양점심집사: BridgePort Health Care Center (Portsmouth, OH).

## 6. 고열/기침/가래/오한/몸살/두통/미각·후각 상실과 같은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가까운 검사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현구 목사 드림



※ 교회 PayPal Email: lkpcusa@gmail.com